

발행인 정우식 / 편집인 전지민, 이선화 / 발행일 2012년 11월 15일 / 560-837 / 전주시 중화신동 2가 655-8(3층) / ☎ 063) 905-0218 (fax 227-0650)

>>> 청소년 교육 · 문화의 길을 열어갑니다 >>>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소식

www.blue21.or.kr



제23호

2012년 11월

사립법인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한 해를 되돌아보며



이사장 이 미 영

결실의 계절, 가을도 어느덧 깊을 대로 깊었습니다.
가을은 우리 교육 현장에서는 입시의 계절이요, 교육과정을 갈무리해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학교에서도 축제로 한해 활동을 총화한 바 있습니다.
우리 문화원에서도 역시 한해를 결산하는 자리로 11월 21일에 '2012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의 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해를 되돌아보니 우리 문화원도 무척 바쁘게 지내왔군요.
올해 주5일제 수업이 전면 실시되는 데 발맞춰 도내 교육문화 단체들을 연결하여 양질의 청소년 문화 체험 활동을 제공하고 연결해주는 '토요 청소년문화 네트워크 사업'에 우리 문화원이 앞장서왔습니다.
또한 교사들의 교육·연수 사업에도 주력하여 왔습니다.
중등 교사를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 직무연수'를 10회에 걸쳐 진행하였고, 초등 교사들과는 '감정코칭을 통한 행복한 교실 만들기' 직무연수를 실시하여 높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물론 올해도 어김없이 12번째 맞은 '전북청소년통일한마당'을 성황리에 마쳤으며, 어려운 남북관계에도 불구하고 '북녘어린이 콩우유 보내기 사업'도 꾸준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북 교육계는 혁신학교 사업에 교사, 학부모의 진출과 노력으로 일정한 성과를 거두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학부모들의 조직된 힘은 전북교육의 변화와 발전을 돕는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의회 교육상임위의 학생인권 조례안 상정 유보와 학교폭력 관련 학생부 기재 지침 문제에서 비롯된 교과부의 고발 및 징계 요구로 인한 교육 가족들의 피로감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제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도교육청, 도의회, 지자체, 교육관련 단체들이 머리를 맞대고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도교육청의 노력이 더욱더 필요한 시점입니다.
교육가족 여러분!
11월 21일에는 전주전통문화관 한벽극장에서 열리는 '문화원의 밤'에서 뵙기를 소망합니다. 지역사회와 교육 현장에서 묵묵히 땀 흘리시는 교육 가족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보내며, 항상 건강하시길 빌겠습니다.

2012년 11월

신는순서

- 02 인사말 / 이미영 이사장
- 03 제4회 이사장배 배드민턴 대회 / 체육한마당 • 제8회 전북청소년교육문화상 수상자 선정
- 04 역사·문화와 함께하는 걷기 - 장흥 편백나무 숲으로 떠난 힐링여행(10월)
- 05 역사·문화와 함께하는 걷기 - 순창 섬진강 마실길(11월) • 김연근 도의원과 교육정책 간담회
- 06 회원연수 • 초등교사 직무연수 마쳐
- 07 회원동정 • 회원, 후원회원 가입 신청
- 08 2012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의 밤

제4회 이사장배 배드민턴 대회 체육한마당

우리 문화원은 지난 10월 27일(토), 전주서문초등학교 강당에서 제4회 이사장배 배드민턴대회/체육한마당을 열었다. 회원들의 화합과 친목을 다지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시작한 이 행사는 70여명이 참여해 배드민턴과 배구를 함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하느라 고생한 임동연 연대사업국장은 “승패와 등수를 떠나 친목과 즐거움에 초점을 두고 있어 서로 알아가고 친해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대회를 마치고 친선 경기로 초·중등으로 편을 나누어 배구 경기를 했는데, 역시 예상대로 초등 팀이 이겼다. 승패를 떠나 매우 유쾌하게 즐긴 한 판이었다. 배드민턴대회 결과는 아래와 같다.



[남자복식] 우승 : 강상호(전주공고)-김규훈(전주공고), 준우승: 노장현(부안교육청)-김진성(장수교육청)

[혼합복식] 우승 : 김두선(정읍덕천초)-오경숙(정읍교육청) 부부, 준우승: 류정애(완주비봉초)-임진강(전일고 1) 모자

[완전초보] 우승 : 정우식(이일여고)-정민주(우전중 1) 부자, 준우승: 한은수(원광고교장)-김영경(교육자치연대 간사)

제8회 전북청소년교육문화상 수상자 선정

— 전북혁신학교학부모대표자협의회 / 11월 21일(수) 「전북청소년문화원의 밤」에 시상식 —

전북혁신학교학부모대표자협의회(회장 윤성이-봉서중 학부모)가 제8회 전북청소년교육문화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전북청소년교육문화상 심사위원회는, ‘한 해 동안 전북지역에서 청소년 교육과 문화 인식을 드높이고 건강한 청소년 문화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한 공로가 큰 단체나 개인을 발굴하여 그 공을 기리고 널리 알림으로써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청소년 문화와 전북교육에 희망의 싹을 틔우고 모두의 귀감으로 삼기 위하여’ 우리 문화원이 제정한 전북청소년교육문화상 수상자로 이 단체를 결정했다.

수상 이유는 ‘경쟁교육 만능의 우리 교육 풍토에서 새로운 교육철학과 관점을 함께 나누고 실천함으로써 지역 학부모 운동의 새 지평을 열었을 뿐 아니라, 학교 문화를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청소년 문화 활동의 영역을 확장함으로써 청소년 교육과 문화에 희망의 싹을 틔운 공이 크므로’ 라고 밝혔다.

수상자에게는 상패 및 상금 50만원이 수여되며, 시상식은 11월 21일(수) 저녁 6시, 전주전통문화관 한벽극장에서 열리는 전북청소년문화원의 밤 1부 행사에서 거행된다.

전북혁신학교학부모대표자협의회는 2011년 5월에 창립하여 ‘행복한 학교, 행복한 아이들을 위한 학부모 선언’을 하며, 지역 학부모운동과 혁신학교 활성화에 기여하면서 ‘학생들을 위한 교육과정, 학생 중심의 학교’를 만드는 일에 앞장서고, 아이들을 입시경쟁교육에서 해방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해왔으며, 도의회 교육위 의정활동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끊임없이 펼쳐왔다.



장흥 편백나무 숲으로 떠난 힐링여행



심신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여주며 향균, 항곰팡이 작용을 하는 피톤치드를 가장 많이 만들어 내고, 사계절 내내 일정한 양을 방출한다는 편백나무.

편백 숲을 찾아 전남 장흥의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로 힐링여행을 떠났다.

7월 걷기 때에는 편백 숲으로 유명한 또 다른 한 곳인 장성 축령산 편백나무 숲을 다녀왔었다. 장성이 자연 숲에 가까웠다면, 장흥은 숙박과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 조성한 휴양공원 같은 느낌이 강했다. 곳곳에 쉼터도 만들어져 있었고 장성보다

사람들이 많은 편이었다. 편백보다 피톤치드는 적게 내뿜지만 2배정도 빨리 자라는 장점 때문에 많이 심는다는 삼나무도 적잖이 섞여 있었다.

10월 6일 도청 남문 앞에서 회원과 가족 32명이 출발했다. 마침 토요일이라서 먼저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장흥도요시장'을 둘러보기로 하고, 점심도 먹을 겸해서 장흥시장에 버스를 댔다.

도요시장 놀이마당 공연장 바로 옆에 있는 식당에서 떠들썩한 장마당 음악소리에 엉덩이를 들썩여가며 맛있게 장흥 삼합(한우고기+키조개 관자+표고버섯)을 즐겼다. 모두들 매우 흡족해 했다. 첫 순서부터 만족감이 크다 보니 여행은 벌써 힐링이 다 된 셈이었다.

식후에는 여유롭게 전통시장을 구경했다. 점심 직후인데도 다문화 가정에서 운영하는 태국, 베트남, 필리핀, 일본 등지의 각종 먹거리에 끌리고, 마음 한줄이라도 함께하며 보태고픈 생각들 때문인지 연신 기웃기웃 군것질을 하기도 했다. 다음에 올 때는 점심을 여기에서 해결해도 충분하겠다는 아쉬움을 표하며...

밤이며, 표고며, 이것저것 장보기도 제법들 했다. 특히 아이들이 많은 노장환 회원 가족은 예쁜 백구 강아지를 한 마리를 사서 데려왔다. 아이들이 몹시 좋아했다. 오는 내내 아이들의 마음을 온통 사로잡았다. 지금도 잘 크고 있는지 안부가 궁금하다.

40년 넘는 키다리 편백나무가 100ha 이상 군락을 이루고 있다는 편백 숲 우드랜드. 주차장에서부터 계속 나무 데크 길이 이어졌다. 포장도로와 흙길도 있지만 폭신평신했어서 맨발로 걷기 좋은 편백나무톱밥 산책로도 나 있어 어른들도 어린아이처럼 즐거워하며 모처럼 양말까지 다 벗고, 여유로운 산책을 즐겼다.

이번 여행은 가벼운 걷기와 편백나무톱밥 찜질로 심신을 힐링하자는 목적으로 기획했는데, 아쉽게도 태풍으로 시설에 피해가 있어 편백나무톱밥 찜질은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편백 소금집에서 소금찜질로 대신했는데, 대체재로 여겨 큰 기대를 안했던 소금찜질에 의외로 다들 만족해했다. 김윤수, 박철희 선생님 부부와 장재성, 백승미, 노길례 선생님 등 다섯 분은 여기까지 와서 산책만 하고 갈 순 없다며, 뒷산인 억불산 정상까지 등산을 하고 오기도 하였다.

우드랜드를 나오면서는 김병주 회원님이 입구에서 파는 표고버섯을 보고, 버섯 향에 그냥 지나칠 수 없었는지 총무님을 채근해서 간식으로 사오도록 하여 차 안에서 생표고를 손으로 찢어 참기름에 찍어 먹었다. 돌아오는 길까지 입맛 힐링. 하루 종일 행복했다.



역사 · 문화와 함께하는 걷기-11월

순창 섬진강 마실길 (11월 3일)

11월 걷기는 순창에 뿌리내리고 사는 순창지기 양정자 회원이 10월 힐링 여행 때 이미 순창으로 유인한지라, 언제 가 봐도 아름답고 마음 푸근해지는 순창 섬진강 마실길을 선택했다. 장구목(장군목) 요강바위를 반환점 삼아 왕복했다.

때마침 순창 섬진강 마실길 축제가 열리는 날이어서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사람들이 많은 탓에 다소 북새통을 이루었지만, 그래도 시골스런 소박함과 훈훈함이 있어서 나름대로 정감이 묻어났다. 아무렇다 해도 섬진강의 그득한 가을 풍광만으로도 즐거움은 충분했고 뭐든 용서될 만했으리라.

걷는 길목에서 순창구립중 국어선생님이 컨테이너를 손수 예쁘게 꾸며 놓고 마을 사람이나 지나는 길손이 이용하도록 열어놓고 운영하는 작은 도서관에도 들러 그이의 따뜻한 마음을 나누었다.

점심은 장류 축제가 한창인 순창장류민속마을에 가서 축제를 즐기며 순대국밥으로 푹딱 해치웠다.



역사 · 문화와 함께하는 걷기-9월



전주시 평화동 학산길 (9월 8일)

역사 · 문화와 함께하는 걷기-7월



장성 축령산 편백나무길 (7월 14일)

» 김연근 도의원과 교육정책 간담회

전라북도의회 김연근 의원이 제9대 후반기 교육위원회 의정활동을 위한 의견청취를 위하여 우리 문화원에 간담회 요청해왔고, 이에 응해 7월 30일(월) 우리 문화원 교육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정우식 원장과 김현봉 부원장, 최병훈, 최선호 전 현 연구소장, 신성하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 의제 발굴과 전북교육 현안에 대한 진단/분석과 대안을 협의했다.

이후에도 서로 교육정책 간담회를 자주 가질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하였다.



회원연수

우리 문화원 회원연수가 8월 25일(토)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 문화원 교육실에서 진행되었다. 문화원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 교육 정세와 전북교육을 진단하기 위한 자리였다.

먼저 안승문 21세기교육연구원장(당시 서울시교육청 정책특보)을 초청하여 특강을 가졌다. 다양한 교육 이력과 경험을 가진 강사는 〈핀란드 교육혁명〉의 저자답게 핀란드, 스웨덴, 독일 발도르프 교육 등을 소개하며, 다양한 교육적 노력과 성과를 들려주어 새로운 교육에 대한 시각과 안목을 넓혀주었다.

이어진 순서에서는 정우식 원장이 ‘문화원의 나아갈 방향’을, 최선호 연구소장이 ‘문화원의 역할’을, 노장환 사무처장(당시)이 ‘문화원 활동가의 역할 분담’을 주제로 각각 발제한 뒤, 주제별로 하나씩 토론회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회원들은 무더위도 아랑곳 않고 열띤 토론에 임했다.



초등교사 직무연수 마쳐

— 감성코칭을 통한 행복한 교실 만들기 —

우리 문화원은 학교폭력과 갈수록 힘들어지는 아이들과의 소통 단절 문제에 조그만 대안이라도 모색해보고자 도교육청의 직무연수 기관으로 지정받아 직무연수를 개설하였다.

상반기의 중등에 이어 여름방학 중에 진행된 초등교사 직무연수 역시 알찬 프로그램과 강사진 구성으로 호평을 받았다. 연수는 ‘교사-학생 간 건강한 소통 증진과 교사의 행복한 삶 찾기’라는 주제로 7월 30일(월)~8월 3일(금)까지 5일간, 매일 6시간씩 총 30시간 동안 우리 문화원 교육실에서 진행되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연수에 임한 교사들은 앞으로도 문화원이 계속 좋은 연수를 개설해주기를 희망했다.

윤구병 선생님(보리출판사 대표)의 ‘영혼을 깨우는 글쓰기’를 시작으로 ‘마음공부란?’(대전중리초 교사 최진), ‘행복한 교사의 삶과 철학’(남원초 교사 김동오), ‘마음공부를 통한 학급 운영’(대전중리초 교사 최진), ‘마음을 이어주는 참대화(진솔성)’(안양여상 교사 김해곤), ‘마음을 이어주는 참대화(진솔성)’(안양여상 교사 김해곤), ‘마음을 이어주는 참대화(공감)’(부천심원중 교사 이미진), ‘마음을 이어주는 참대화(분노 다루기)’(이리공고 교사 고영희), ‘마음을 이어주는 참대화(감사, 칭찬)’(수원상촌초 교사 설현정), ‘교실 심리’(광주양지병원 정신과의사 김석재), ‘평화로운 학급 만들기’(김포운유초 교사 이해미)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이번 연수를 통해 교사들은 아이들과 보다 나은 관계를 꿈꿀 수 있게 되었다.





사단법인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의
새 가족이 되신 신입회원님을 환영합니다.

신입 회원 (가입일 순)

- 7월 백승미(남원국악예술고)
노길례(정읍제일고)
- 8월 소명숙(전 전주지곡초 교장·퇴임)
이효경(완주동상초)
오금남(전주우림초)
최선숙(전주삼천남초)
- 9월 채지연(익산교육지원청)
박복식(남원교육지원청)
오경숙(정읍교육지원청)
김두선(정읍덕천초)
김화자(부안교육지원청)
- 10월 최현주(진안안천초 병설유치원)
- 11월 고화숙(전주공고 학부모)
정애영(전주공고 학부모)
김복심(정읍유치원 원장)
최재완(진안중앙초)



▶ 축 결혼

유성례(전주서신초) 선생님께서 11월 10일 전주향교에서 가을밤 정취 넘치는 낭만적인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신랑이 미디어아티스트이신지라 고풍스런 향교 한옥건물에 다 멋진 미디어아트를 선보였답니다. 아름답고 행복한 부부 되세요.

▶ 축 출산

8월 **이민경**(전주우림초) 선생님. 초등직무연수 중 첫 아이를 출산하셨습니다.
10월 **최상렬**(전주서신초), **임진영**(정읍초) 선생님 둘째 득남

▶ 근조

김영춘(솔내고) 자문위원 모친상(9월), 장인상(10월)
이춘지(전주공고) 선생님 모친상(10월)

정우식 원장 혁신학교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선출

정우식 원장님이 [혁신학교운영조례]에 따라 구성하게 된 '혁신학교운영위원회'에 교육단체 몫의 위원으로 참여하시는데, 부위원장에 선출되어 열심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위원장은 이경한 교수(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공동대표).

교육문화중심 '아이행복' 사단법인 설립 허가

* 우리 문화원 한은수 이사님(원광고 교장)께서 이사장으로, 정우식 원장과 강윤희 이사가 이사로 참여하고, 박일범 고문, 이미영 이사장, 김영춘, 황만길 자문위원이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교육문화중심 '아이행복' 이 8월 31일, 사단법인 설립 허가가 났습니다. 더욱 폭넓고 힘찬 활동 기대합니다.

사단법인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의 회원이 되어 주십시오.

후원 계좌 | 전북은행 543-13-0310862 사)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 약정해주시는 월 후원금은 약정기일(2일/23일)에 출금되며, 혹 통장 잔고 부족 및 기타 사유로 출금이 안 된 경우 다음 달에 합산하여 출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후원 내역 중 궁금하신 내용은 사무처로 문의하여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문의 905-0218

< ※ 홈페이지(www.blue21.or.kr)에서 보다 간편하게 회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회원 / 후원회원 가입 신청서

이 름	회 원 (), 후원회원 ()		
직 업 / 직 장	담당 업무 (교 과)		
직 장 전 화	집 전 화		
손 전 화			
E - mail 주소			
직 장 주 소			
자 택 주 소			
예 금 주	주 민 등 록 번 호		
월 이 체 액	회비 1만원 + 후원금() 만원	CMS 자동이체 여부	예(), 아니오()
계 좌 번 호	(은행명)		

초대합니다

소중한 분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2012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의 밤

문화원을 사랑해주시는 분들께...

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올겨울은 특히 어렵게 생활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혹독한 나날이 될 것 같아 김장 나눔과 소외계층 청소년 돕기 후원금을 마련하기 위한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의 밤' 행사를 개최합니다.

그동안 소외계층 청소년에게 다양한 교육·문화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나름의 활동해왔습니다만 어려울수록 힘을 조금 더 모아야겠다는 생각에서입니다. 수익금은 소외계층 청소년 지원에 쓰입니다.

지금 전주공고에서는 저희와 함께 김장을 담가 어려운 청소년과 나누기 위해서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잡초 무성하던 교내 유휴지에 밭을 일구어 정성껏 유기농 김장 배추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동·청소년들을 돌보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난방비조차 변변히 없이 겨울을 나야 하는 영세 지역 아동센터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 몇 군데에 난방비라도 보태줄 수 있다면 늘 무심히 잊고 사는 마음의 죄스러움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입니다.

가까운 분들끼리 편안히 만나 마음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5시부터는 로비에서 간단히 저녁 요기를 할 수 있도록 음식도 마련했습니다.



* 티켓 후원금은 김장 나눔과 소외계층 청소년 돕기에 쓰입니다.

'김장 나눔' 과 '소외계층 청소년 돕기' 후원금 마련

2012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의 밤

제1부 기념식 (18:00~18:30)

- 전북청소년교육문화상 시상
- 2012 영상 활동보고

제2부 문화공연 (18:30~20:00)

- 관악 합주
- 어린이 합창
- 색소폰 연주
- 창작 판소리
- 사물놀이

♣ 5시부터는 로비에서 간단히 저녁 요기를 하실 수 있도록 음식을 준비해 놓겠습니다.

2012. 11. 21(수) 오후 6시~8시 | 전주 전통문화관 한벽극장 (한벽루 옆)

좋은 일,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아이들 삶의 길벗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교육과 청소년 문화의 길잡이가 되고 싶습니다.
함께하면 서로 힘이 되지요.

지금 곁에 있는 바로 당신을 기다립니다.
주위 분들에게도 회원 가입이나 후원금 약정을 적극 권유해 주십시오.
회비나 후원금 수납은 CMS로 합니다.

홈페이지나 소식지, 리플릿 등에 있는 회원가입원서를 작성하여 보내주시거나,
회원을 통해 전달하시거나, 사무실에 전화나 팩스를 주셔도 됩니다.

후원/입금 계좌

농협 501109-51-032556

사)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Jeonbuk Teenagers Educational & Cultural Center

www.blue21.or.kr ☎ 063) 905-0218 Fax 227-0650 560-833 전주 완산구 영경 1길 16(3층, 중화산동 2가)